세계 반도체화학“ 고성장"

94년 11억달러시장 형성 … 포토레지스트 30% 성장

세계 전자시장중 반도체시장이 전체화학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웨이퍼Fab 시장이 큰 폭의 수요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새로 60여개의 생산공장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따라 10억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며, 스페셜티 전자 화학시장은 한해 500만달러의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도체관련 화학시장은 지난 93년에 10억달러시장을 형성했으며,한해 평균 10%의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어 94년에는 11억달러의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시장별로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의 경우 5~7%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고품질 포토레지스트시장은 한해 30%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산이나 용제 등 세척제 용도시장과 메모리칩 등에서 고순도를 요구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수요증가가 큰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Ashland Chemical은 최근 새로운 생산라인 가동을 통해 불순물의 양을 PPB당 1에서 100으로 줄이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세계 반도체시장에서의 불순물제거용 용제시장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던 포토레지스트시장은 93년에 총 5억5000만달러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체미국시장의 18%,세계시장의 30%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Ohka는 향후 고품질 포토레지스트생산에 주력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학저널 1994/6/6>